

# 국어사전에서의 지정사의 활용정보

배 주 채\*

## 1. 머리말

국어사전에서 용언 표제어는 그 용언의 활용형들을 모두 품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문장에 나타나는 수많은 어형들을 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그 활용형들 중 표제어로 선정되는 기본형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기본형에 매달려 기술되게 된다. 그러므로 각 용언 표제어에 대해 그 활용형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기존 사전들은 용언의 활용양상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형용사 ‘맵다’의 불규칙한 활용에 대해 사전에 따라 ‘**ㅂ**변칙용언’(또는 ‘**ㅂ**불규칙용언’)이라는 표시를 달기도 하고 ‘매우니, 매워’와 같은 활용형을 직접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다’와 ‘아니다’의 활용양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기존 사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sup>1)</sup>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전의 임무가 아니라고 할 근거는 없다. 이 글에서는 기존 사전들의 기술방식을 살펴보고 사전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sup>2)</sup>

---

\*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이 글에서는 ‘이다’와 ‘아니다’를 묶어 지정사로 본다. 또 지정사는 형용사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2) 이 글에서 언급하게 될 국어사전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인용할 때는 각 사전의 약호를 이용하기로 한다.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약호 <표>

김상형 편(1991),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약호 <금>

## 2. 활용정보와 사전

### 2.1. 문법과 사전

화자의 언어지식이 문법과 사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단순화했을 때 문법은 규칙적인 사항을 저장한 부분이고 사전은 불규칙적인 사항을 저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학자가 화자의 언어지식을 기술할 때도 음운론적, 문법론적, 의미론적, 화용론적, 어휘론적 사항들 중 규칙적인 것들은 문법에서 기술하고 불규칙적인 것들은 사전에서 기술하게 될 것이다.

언어현상들 중에는 완전히 규칙적인 것들과 완전히 불규칙적인 것들 사이에 다양한 단계의 규칙성을 가지는 현상들이 존재한다. 그런 중간적인 사항들은 문법과 사전 중 어느쪽에서 기술해야 하는가 문제가 된다. 실용적인 문법과 사전을 편찬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중간적인 사항들을 문법과 사전 양쪽에서 함께 기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반인들의 처지에서는 어떤 사항이 문법에서 기술될 만한 것인지 사전에서 기술될 만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 2.2. 활용정보의 종류

문법 또는 사전에서 기술하게 되는 활용정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형태론적인 정보가 그 하나이고 음운론적인 정보가 다른 하나이다. '대하다'라는 동사가 '대하여/대해, 대하여서/대해서, 대한'으로만 활용한다는 정보는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 한국어 사전』, 두산동아. 약호 <연>  
이희승 편(1961), 『국어대사전』, 초판, 민중서관. 약호 <이61>

\_\_\_\_\_ (1982), 『국어대사전』, 개정판, 민중서림. 약호 <이82>

\_\_\_\_\_ (1994), 『국어대사전』, 개정판, 민중서림. 약호 <이94>

임흥빈 편(1993), 『뉴앙스 풀이를 곁한 우리말 사전』, 아카데미하우스. 약호 <임>

한글학회 편(1947~1967), 『큰 사전』, 을유문화사. 약호 <큰>

\_\_\_\_\_ (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약호 <한>

간노 히로오미[菅野裕臣] 외 편(1988), 『コスモス朝和辭典』, 東京:白水社. 제2판, 1991. 약호 <코>

형태론적인 정보이다. 많은 어미들 중 일부 어미만 이 동사의 어간에 연결될 수 있다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완전계열에 대한 정보가 전형적인 형태론적인 정보인 것이다.<sup>3)</sup>

음운론적인 활용정보란 특정한 어간에 특정한 어미가 연결되었을 때 그 활용형이 어떻게 실현(발음 또는 표기)되느냐 하는 데 대한 정보이다.<sup>4)</sup> ‘듣다’의 어간에 어미 ‘-어서’가 연결될 때 ‘들어서’ /드러서/로 실현되는지 ‘들어서’ /드러서/로 실현되는지 하는 데 대한 정보가 음운론적인 활용정보의 예가 된다.

음운론적인 활용정보와 형태론적인 활용정보는 <표>에서 분명히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사전에서 활용정보라고 말하는 것은 음운론적인 활용정보이다. 이것은 발음정보 바로 뒤에서 대괄호 [ ] 안에 제시하고 있다. 형태론적인 활용정보는 문법정보의 하나인 활용상의 제약이라는 이름으로 뜻풀이 바로 앞에서 괄호 ( ( ) ) 안에 제시하고 있다.

갈대[갈때][갈아, 갈으니]㉠……㉡……㉢(‘갈으면’ 꼴로 쓰여) ‘-라면’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옛날 같으면 남녀가 한자리에 앉는 건 상상도 못한다.

여기서 [갈아, 갈으니]는 음운론적인 활용정보이고 ((‘갈으면’ 꼴로 쓰여))는 형태론적인 활용정보이다.

두 가지 활용정보 중 여기서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음운론적인 활용정보이다. 앞으로는 음운론적인 활용정보를 줄여서 활용정보라고 부르기로 한다.

### 2.3. 활용정보를 기술하는 부문

활용정보는 문법에서 기술해야 하는가 사전에서 기술해야 하는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활용정보 중에서 규칙적인 사항은 문법에서 기술하고

3) 불완전계열에 대해서는 고영근(1987/1989) 참조.  
4) 발음뿐만 아니라 표기도 관련되므로 음운론적인 활용정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못하다. 우선 음운론적인 활용정보 안에 표기법적인 활용정보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로 한다.

불규칙적인 사항은 사전에서 기술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규칙 활용에 대한 정보는 문법에서 기술하고 불규칙활용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서 기술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실 형용사 ‘같다’에 연결어미 ‘-어’가 붙으면 ‘같이, 같애’ 등이 아닌 ‘같이’로 실현되고 연결어미 ‘-으니’가 붙으면 ‘같이’가 아닌 ‘같이니’로 실현된다는 점은 문법에서 몇 가지 규칙을 통해 충분히 기술할 수 있는 내용이다. 예전 사전들은 ‘같다’와 같은 규칙용언의 활용정보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급>, <연>, <표>는 모든 규칙용언에 대해서 활용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인에게 문법적 지식을 동원하는 수고를 덜어 주려는 지극히 실용적인 관점을 취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똑같은 사실이 문법에서도 기술될 것이므로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중복기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그 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sup>5)</sup>

불규칙용언의 활용정보는 사전에서 기술하는 것이 옳다. 동사 ‘듣다’의 활용정보 [들어, 들으니]는 사전에 마땅히 제시되어야 할 정보이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문법에서는 제시할 필요가 없는가? 학교문법이나 여러 이론문법서들은 대부분 불규칙활용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에 대한 기술을 함께 함으로써 용언의 활용형에 대한 형태음운론적인 기술이 완성될 수 있다. 둘째, 불규칙활용도 상당한 규칙성을 지니고 있다. 불규칙용언이라고 해서 용언마다 제각기 활용양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불규칙활용이 몇 가지 유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듣다, 들어, 들으니’와 같이 활용하는 용언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것들이 모두 ‘듣다’와 같은 방식

5) 한편 <표>에서는 체언에 보조사 ‘만’이 결합하여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발음 정보를 일일이 제시하고 있다. 명사 ‘떡’에 대해 [떡만[명-]]과 같이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 및 그 발음을 제시했다. 이것은 지나친 친절이 아닌가 생각된다. 비음화 현상은 체언과 조사의 연결뿐만 아니라 어떤 단어나 형태소가 만나더라도 반드시 일어나는 규칙적인 음운현상인데 이것을 체언 표제어에 대해서만 일일이 표시해 주는 것은 정보의 과잉제공이라고 판단된다. ‘일찍’과 같은 부사 표제어도 보조사 ‘만’이 붙을 수 있는데(아침에 일찍만 가면 언제든지 버스를 탈 수 있다.) 부사 표제어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발음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일관성도 없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으로 활용한다고 간단히 기술할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에 대한 정보를 기존 문법서와 사전이 중복을 감수하면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사전에서 불규칙활용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기술해야 하고 규칙활용에 대한 정보는 편찬의도에 따라 제시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는 것이다.

### 3. '이다'의 활용형들의 표제화에 관한 문제

학교문법에서는 오랫동안 '이다'를 서술격조사로 처리해 오고 있다.<sup>6)</sup> '이다'를 조사로 보는 데서 생기는 한 문제는 '이다'의 수많은 활용형들 각각을 서로 다른 조사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로 가장 큰 혼란을 겪은 사전은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이다. <이61>과 <이82>, <이94>에서 '이다'의 표제화 방식이 각기 다르다.

<이61>에서는 '이다'를 어미로 보고 있다. '-이다'와 '-다'의 풀이를 여기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이다 [어미]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사물을 지정하는 뜻을 나타낼 때 쓰는 말.★아메에바는 동물—/이 것은 책—. \*—다. ←아나다.
- 다 [어미] ①어간에 붙어서 그 말의 원형을 나타내는 어미.★가—. ②형용사·존재사·받침 없는 체언의 어간에 붙어 현재형을 서술할 때 끝맺는 종결 어미.★맑—/병자—. ③↗다고★돈이 없— 낙심 마라. ④↗다가.★참새를 잡았— 놓아 주다.

우선 '이다'는 자음 뒤에 쓰이고 '다'는 모음 뒤에 쓰이는 것으로 기술한 점은 정밀하지 못하다. '-다'②의 용례 '병자다'는 '병자이다'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모음 뒤에 '이다'가 쓰일 수 없는 것처럼 기술한 것은 잘못이다.

'이다'의 다른 활용형들도 상당수가 표제어로 올라 있는데 다음의 '이며'에 대한 기술에서처럼 주로 어미로 처리되어 있다.

6) '이다'의 품사 처리의 역사는 김민수(1994), 이광정(1994)를 참조.

-이며 [어미]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서술할 때 쓰는 연결 어미. ★그는 철인— 시인이다. \*—며.

‘이다’의 활용형들을 각각 독립된 어미로 보려는 이러한 태도는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고 있다. 다음 예에서 보듯이 ‘이면’은 어미가 아닌 조사로 처리되어 있으며, ‘-면’은 용언어간에 붙는 용법만 설명되어 있고 받침 없는 체언에 붙는 용법은 빠져 있다.

이면3 [조]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가정적(假定的) 사실을 나타내는 조사. ★ 이것이 다 금(金)— 좋겠다. \*면.

-면 [어미] 받침 없는 어간에 붙어 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꽃이 피— 새가 울겠지/날이 새— 떠나리다.

또 ‘이다’의 활용형 가운데 ‘이더라, 일는지’ 등 표제어로 실려 있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이61>의 문제점은 <이82>에서 고쳐졌다. ‘이다’와 ‘다’는 다음과 같이 서술격조사로 처리되어 있다(‘환자이다, 전문가이다’가 가능한 형태임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

이다5 [조]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사물을 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형 서술격 조사. ¶아메바는 동물~/이것은 책~. \*다5.

다5 [조] 서술격 조사 「이다」의, 받침 없는 체언에 쓰일 때의 형태. ¶너는 환자~/이 방면의 전문가~. \*이다5.

이에 따라 ‘이다’의 모든 활용형이 각기 조사로서 표제어로 실려 있다. ‘이다’의 활용형 ‘이면’과 ‘면’, 그리고 어미 ‘-면’의 기술을 보면 일관성의 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이더라, 더라, 일는지, 르는지’ 등 ‘이다’의 다른 활용형도 모두 표제어로 실려 있다.

이면3 [조]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가정적(假定的) 사실을 나타내는 연결형 서술격 조사. ¶이것이 다 금(金)~ 좋겠다/사람~ 사람답게 굴어라. \*면.

면 [조]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 가정적 사실을 나타내는 연결형 서술격 조사.  
 ¶쇠고기~ 다 같은 줄 아느냐. \*이면.

-면 [어미] 받침 없는 어간에 붙어 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꽃이  
 피~ 새가 올겠지/날이 새~ 떠나리다. \*-으면

그런데 <이94>에서 ‘이다’의 처리는 또 한 번 큰 변화를 겪는다. ‘이다’를 제외한 모든 활용형이 표제화되지 않고 사라져 버린 것이다. 여기서 ‘이다’를 서술격조사로 볼 때 두 가지 문법적 견해가 갈릴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첫째는 ‘이다’와 ‘이다’의 활용형들 각각을 독립된 조사로 보는 견해이다. ‘이다, 이고, 이면, 이더라, 일는지’ 등이 각각 독립된 조사라는 것은 ‘-다, -고, -면, -더라, -르는지’ 등이 각각 독립된 어미라는 논리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다’가 종결어미이고 ‘-면’이 연결어미라면 ‘이다’는 종결조사이고 ‘이면’은 연결조사이다. 이것이 <이82>가 취한 태도이다.

둘째는 조사 중에 ‘이다’만이 활용하는 단어라고 보고 ‘이다’의 ‘이-’는 어간, ‘-다’는 어미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렇게 보면 조사 ‘이다’의 기술은 용언 ‘먹다, 좋다’ 등의 기술을 닮게 된다. ‘먹고, 먹으면, 좋고, 좋더라’ 등의 활용형이 표제화되지 않듯이 ‘이다’의 활용형들 ‘이고, 이면, 이더라’ 등도 표제화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94>가 취한 태도이다.

둘째 견해는 조사의 활용이라는 특수한 현상을 인정해야 하는 부담이 약점이지만 그 부담만 견뎌내면 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첫째 견해는 조사의 활용을 인정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려는 데서 다른 문제들을 불러일으킨 경우이다. 조사 ‘이다, 다’와 어미 ‘-다’가 똑같이 해라체 종결의 기능을 가지며 ‘다’라는 형태를 공유하는 점이 순전한 우연으로 처리되는 점이 우선 문제이다. 여기서 똑같은 문법기능이 조사와 어미에서 중복기술되는 문제도 파생된다. 그리고 ‘이다’의 수많은 활용형들 중에서 ‘이었던다’와 같이 어미가 둘 이상 붙은 것을 표제화하지 않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하는 수 없이 다양한 어미들이 둘 이상 연결된 ‘이다’의 활용형을 모두 조사로 인정하게 되면 이번에는 조사의 대부분을 서술격조사가 차지하게 되는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다. 이 때문에 90년대 이후에 나온 사전

들은 둘째 견해를 따라 ‘이다’를 서술격조사로 보면서도 ‘이다’의 활용형들을 표제화하지 않고 있다.

사전 편찬의 태도에 관련된 이런 자세한 내용을 사전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남영신 편(1994) 『우리말 분류 대사전』에서 그런 사정이 어느 정도 설명되어 있다. 이 사전의 토씨(조사) 편에는 ‘이다’의 여러 활용형들이 표제화되어 있다. <이82>와 같은 처리이다. 그런데 ‘이다’의 활용형을 표제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충설명을 일일이 달아 놓았다.

이다 {조} 단정적으로 설명할 때 쓰이는 토씨[조사]. \*다2. [그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선생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집이다.] <문법: ‘이다’를 ‘이+다’의 복합 형태로 보고, ‘이’를 독립한 품사로 여기는 견해에 따르면, ‘이다’는 조사가 아니고 ‘다’만 어미로 취급된다.>

다3 {조} 단정적으로 설명할 때 쓰이는 토씨[조사]. \*이다. [그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선비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사회다.] <문법: ‘다’를 ‘이+다’에서 ‘이’가 생략된 형태로 보고, ‘이’를 독립한 품사로 여기는 견해에 따르면, ‘다’는 조사가 아니고 어미로만 취급된다.>

꽤 많은 ‘이다’의 활용형들에 대해서 매번 같은 형식의 보충설명을 달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인식한 결과라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처리를 해 온 것은 한글학회의 두 사전 <큰>과 <한>이다. <큰>에서는 ‘이다’와 ‘-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이다 【잡】 사실(事實)을 적극적으로 잡아서 일컫는 말. (“아니다”의 대). [이것은 책—, 그 사람은 영웅—].

-다 【끝】 ①모든 어간에 붙어 현재의 일을 배풀어 말할 때 끝맺는 어미. [하늘이 높—, 소는 짐승이—]. ②“-다고”의 준말. ③“-다가”의 준말.

‘이다’는 지정사(잡음씨)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활용형들이 표제화되지 않은 것 또한 당연하다. “하늘이 높다.”의 ‘-다’나 “소는 짐승이다.”의 ‘-다’나 다 같은 어미로 처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다’를 용언으로 처리하면 조사처럼 체언 등에 직접 붙는다는 특수성을 감내해야 하지만 활용양상의 사전 기술은 아주 수월해진다.

#### 4. 기존 사전들에 나타난 ‘이다’의 활용정보

‘이다’를 조사로 보든 용언으로 보든 그것이 활용을 하는 활용어라는 점을 인정하면 기본형 ‘이다’만 표제화하면 된다. 나머지 활용형들에 대한 정보는 다른 용언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기본형 ‘이다’ 항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이61>, <이82>에서 ‘이다’가 자음 뒤에 쓰이고 ‘다’가 모음 뒤에 쓰인다는 식으로 다소 그릇되게 기술한 것을 제외하면, ‘이다’의 활용정보가 사전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의 일이다. <한>은 ‘이다’의 활용정보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사전 이용자는 용례에 나와 있는 ‘집이(있)다, 집이니, 집인 줄, 집이기를, 책이로구나, 누구일까’ 등을 통해 다른 활용형들을 추측해야 한다. <한>은 활용정보 제공에 무척 인색하다고 할 수 있다.

쓸 만한 활용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는 사전은 <금>, <임>, <연>, <표>이다. 한편 국어사전과 같은 단일어사전이 아닌 이중어사전인 <코>는 국어사전보다 먼저 더 정밀한 활용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 다섯 사전에 나타난 활용정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4.1 <금>의 경우

<금>의 ‘이다’ 항에는 특별한 경우에 ‘이’가 생략될 수도 있다는 점 외에는 활용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다5 [조] 체언에 붙어, 사물을 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서술격 조사. 용언처럼 활용을 하며, 모음 아래에서는(특히 구어체에서) 어간 ‘이’가 생략되기도 함. ♯이것은 책~/그는 훌륭한 학자(이)다.

그런데 <금>에서 특기할 일은 부록으로 활용표를 실은 점이다. 거기에 ‘조사표’라는 이름으로 제시한 여러 표 가운데 ‘서술격의 형태’라고 해서 ‘개(명사)+이다’의 다양한 활용형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표의 형식을 단순화하여 여기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기본형 : 개(이)다
  - (2) 해라체 : 개다 개나 개구나 개며 개면 개여서 개인 개임 / 개졌다 개졌느냐  
개졌구나 개졌으며 개졌으면 개졌어서 개일 개졌음 / 개였다 개였느냐 개  
였구나 개였으며 개였으면 개였어서 개던 개였음
  - (3) 해체 : 개야 개야 개군 ... / 개졌어 개졌어 개졌군 ... / 개였어 개였어 개  
였군 ...
  - (4) 하계체 : 겠세 갠가 개구려 ... / 개졌네 개졌나 개졌구려... / 개였네 개였  
나 개였구려 ...
  - (5) 하오체 : 개요 개요 개군요 ... / 개졌소 개졌소 개졌군요 ... /개였소 개였  
소 개였군요 ...
  - (6) 합니다체 : 갹니다 갹니까 갹니다그려 개요며 개요면 개이와 개이온 개이음  
/ 개졌습니다 개졌습니까 개졌습니다그려 개졌사오며 개졌사오면 개졌사와  
개이올 개졌사음 / 개였습니다 개였습니까 개였습니다그려 개였사오며 개  
였사오면 개였사와 개였사온 개였사음
  - (7) 하나이다체 : 개요이다 개요니까 개요이다그려 개읍사오며 개읍사오면 개읍  
사와 개읍사온 개읍사음 / 개졌소이다 개졌소니까 개졌소이다그려 개졌사  
오며 개졌사오면 개졌사와 개졌사올 개졌사음 / 개였소이다 개였소니까 개  
였소이다그려 개였사오며 개였사오면 개였사와 개였사온 개였사음
- ※ ‘...’는 해라체의 해당 형태와 같아서 인용과정에서 생략한 것임.

또 다른 표에서는 말이 다른 몇 명사가 결합할 때 ‘이’가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아이(이)~ 사람이~ 어머니(이)~ 어른이~ 머리(이)~ 꽃이~ 말이~ 나~  
누구~ 무어~

조사표가 아닌 형용사 어미표에도 ‘이다’의 활용형이 들어 있다. 역시 해당 부분의 형식을 단순화하여 가져와 보면 다음과 같다.

서술격 -이+어미

- (1) 집-이-대[家] : 집이다 집이냐 집이구나 집이며 집이면 집인 집임 집이겠다  
집일 집이었다 집이던 / 집이야 집이군 집일세 집인가 집이요 집이군요 집  
입니다 집이온 집이오이다 집이시~ 집이옵~
- (2) 위-이-대[上] : 위이다 위이냐 위이구나 위이며 위이면 위인 위임 위이겠다

위일 위이었다 위이던 / 위이야 위이군 위일세 위인가 위이요 위이군요 위  
입니다 위이온 위이오이다 위이시~ 위이옵~

- (3) 위-이-대[上] : 위다 위냐 위구나 위며 위면 위인 위임 위겠다 위일 위였다  
위던 / 위야 위군 율세 원가 위요 위군요 됩니다 위온 위오이다 위시~ 위  
옵~

여기서 고딕체는 주의해야 할 형태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형용사 어미  
표 뒤에 위의 표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 '이다'에 대한 것이 다음과 같이 나  
와 있다.

서술격 -이+어미

- (1) 집···(받침으로 끝난 명사)+(서술격 -이)+(어미)의 경우.
- (2) 위···(받침 없이 끝난 명사)+(서술격 -이)+(어미)의 경우.
- (3) 위···(받침 없이 끝난 명사)+(서술격 -이)+(어미)에서 '-이'가 주는 경우.

이들 표와 관련 설명은 이전의 사전들에서 '이다'의 활용정보를 거의 또  
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던 관습을 무너뜨린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여주고 있  
는 활용형의 수도 꽤 많고 다양한 편이다. 그러나 이것이 완벽한 기술이 되  
지 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때문이다.

첫째, '이다' 항의 기술에서 활용정보는 부록의 활용표를 참조하라는 표시  
가 없다. 부록의 활용표에서 보여주는 정보는 주로 '이'의 생략과 관련된 것  
들이므로 '이다' 항의 뜻풀이 뒤에서 '이'의 생략에 대해 짚막하게 기술한 것  
에 대한 보완이 부록에서 이루어지는 셈인데 이것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둘째,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해 놓고서 조사표와 형용사 어미표에서  
'이다'의 활용표를 중복하여 제시할 이유가 없다. '이다'에 붙는 어미들이 형  
용사에 붙는 어미들과 거의 같기 때문에 형용사 어미표에도 참여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이다' 항에서나 조사표에서 '이다'가 형용사처럼 활  
용한다는 정보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이다'의 특수한 활용형들이 모두 제시되지 않았다. '이+어서, 이+어  
도, 이+어야'는 각각 '이라서, 이라도, 이라야'로도 쓰이고 '이다+고'는 '이라

고'로 쓰이며 '이+도다'는 '이로다'로 쓰이는 등 '이다'만 가진 특수한 활용형들이 꽤 있는데 이들이 표나 설명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넷째, 조사표에서 '위-이-다'에 대해 활용표를 두 가지를 들고 한 가지는 '이'가 생략되지 않는 경우를, 또 한 가지는 '이'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명사로 '위'를 선택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위'의 음가는 표준발음법에서 /ü/로 규정하고 있고 /wi/도 허용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후자가 우세하다. 그렇다면 명사 '위'는 '이' 말음 명사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의 생략 현상을 기술할 때 '이' 말음 명사에 '이다'를 붙여서 관찰하면 발음상 '이'가 생략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비-다'와 '비-이다'가 표기상으로는 분명히 구별되었지만 발음상으로는 구별이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의 생략이 분명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차-이다, 소-이다'처럼 다른 모음으로 끝난 명사의 예를 드는 것이 좋다.

## 4.2 <임>의 경우

<임>은 '이다' 항에 대한 풀이에서 활용양상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sup>7)</sup> 우선 '이다'의 활용정보란에서 '이+아/어→이어/이라'와 같은 공식을 보이고 있다. '이다'의 어간에 연결어미 '-어'가 연결되면 '이어' 또는 '이라'가 된다는 공식이다.

그런데 이 공식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sup>8)</sup> 첫째, 이 공식만 가지고는 '이어서/이라서, 이어도/이라도, 이어야/이라야'까지 기술했다고 보기 어렵다. 어미 '-어서, -어도, -어야'가 연결어미 '-어'에 '-서, -도, -이야'와 같은 요소가 붙은 복합어미라고 보고 위의 공식이 이들 복합어미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어서/이라서, 이어도/이라도, 이어야/이라야'까지 기술한 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종결어미 '-어'도 연결어미 '-어'에 '-요'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라요'라는 부적격한

7) <임>은 '이다'의 품사를 형용사로 표시한 유일한 사전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옳은 품사 처리라 여겨진다.

8) '이라'와 '이어'가 모음 뒤에서 각각 '라, 여'로도 쓰일 수 있는 사실은 우선 거론하지 않고 '이라'와 '이어'로 대표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형태를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위의 공식에 들어 있는 어미 ‘아/어’는 연결어미 ‘-어’만을 뜻하고 ‘-어서, -어도, -어야’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위의 공식은 ‘이어서/이러서, 이어도/이라도, 이어야/이러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보조동사 ‘보다’ 앞에서는 위의 공식이 옳지 않다.

내가 사장이어/\*사장이라 봐. 너 같은 놈은 당장 해고야.  
그녀는 가끔 ?공주여/\*공주라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이 두 예문에서 보듯이 보조동사 ‘보다’ 앞에서는 ‘이라’라는 활용형이 부적격하고 ‘이어’만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위의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야 한다. 결국 위의 공식은 단순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기술은 되지 못한다.

<임>은 또 ‘이다’의 첫 번째 용법 [1]의 뜻풀이 끝에 “모음으로 끝난 말 뒤에 쓰일 때에는 어간 ‘이’가 나타나지 않는 일이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이것은 ‘이’탈락 현상에 대한 짙막한 언급이다. 그런데 이 언급이 왜 [1]에만 붙어 있는지 알 수 없다. 다음에 보이는 ‘이다’의 두 번째 용법 [2]의 예문에서도 ‘이’탈락은 가능한데 말이다.<sup>9)</sup>

동생이 서울에 온 것은 어제~.  
그들이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10시부터~.

‘어제이다, 10시부터이다’에서도 ‘이’탈락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이’탈락에 대해서는 [1]과 [2] 모두에서 언급해야 옳다.

9) ‘이다’의 용법 [1]과 [2]에 대해 다음과 같은 뜻풀이를 제시하고 있다.

[1]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와 같은 체언 뒤에 쓰여, 같은 문장의 주어로 나타나는 대상의 속성이나 정체(正體) 또는 수효를 밝히는 서술어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모음으로 끝난 말 뒤에 쓰일 때에는 어간 ‘이’가 나타나지 않는 일이 있다.

[2] 체언 바로 뒤나, 다른 조사가 쓰인 체언 뒤, 또는 부사나 용언의 부사형 어미 뒤에 쓰여, 어떤 명제와 관련되는 문제의 대상이나 시간이나 장소나 방향 등이 바로 그 앞에 오는 것임을 밝히는 서술어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임>은 [1] 바로 뒤에 “‘이다’의 ‘이’탈락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상자 글을 마련하고 있다. ‘이’탈락이 위의 한 문장으로 다 설명될 수 없으므로 이렇게 특별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다’ 앞에 오는 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이-’를 가진 형식이 쓰이고, 앞에 오는 체언이 모음으로 끝날 때는 ‘이-’를 가지지 않은, 단순한 ‘-다’만이 쓰인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자음으로 끝난 말 뒤에는 예외 없이 ‘이-’를 가진 형식이 쓰이나, 모음으로 끝난 말 뒤에는 ‘이-’를 가지지 않은 형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아우이다, 사람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 예(禮)이다, 이것이 새로 나온 차입니다’ 등과 같이 비록 앞의 말이 모음으로 끝나도 ‘이-’를 가진 형식이 쓰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를 가진 형식을 쓰는 것은 구어적이 아니라 문어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는 나의 친구임’과 같은 예, ‘놀부인 형’이나 ‘친구인 철이’와 같은 구성에서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라고 해도 반드시 ‘이-’가 쓰여야 한다.

이것만으로 ‘이’탈락이 다 설명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전까지의 국어사전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을 보여준 점에서 돋보인다.

또 <임>은 ‘이다’ 항목의 맨 끝에 “‘이다’ 활용의 화석형(化石形)”이라는 상자 글을 두고 있다.

‘이다’는 어원적으로 ‘\*일-’이란 어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세 한국어에서 ‘이다’의 평서법 종결 어미가 ‘-라’와 같이 나타난 것, 그리고 현대어에서도 명사문이 다른 문장에 내포되는 경우에 ‘책이라고 한다’와 같이 ‘-라’ 형이 나타나는 것, 또는 ‘이라, 이라서, 이라도’와 같이 다른 용언의 어간 뒤에는 ‘-아/어/여, -아/어/여서, -아/어/여도’와 같이 나타나는 어미가 유독 ‘이다’의 ‘이-’ 뒤에서만 앞에 ‘르’를 가진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어원적인 어간의 ‘르’이 아직도 화석형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것은 활용양상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이다’의 어간이 기원적으로 ‘일-’이었음을 말하는 데 중점이 있다. 그렇지만 다른 사전들에서 보여주지 않던 활용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점은 지적해 둘 만하다.

### 4.3 <연>의 경우

<연>은 '이다'의 활용정보란에 '(집)인, (집)이어, (집)입니다, (집)이로구나, (집)이로세, (집)이로다'를 제시하고 있다.<sup>10)</sup> 활용정보란에 '이다'의 몇 특수한 활용형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나 이것만으로 활용정보를 모두 제시했다고 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연>은 옆 참고란에 “'이'가 생략되기도 함”이라고 언급하고 '이다' 항 끝의 상자 글을 통해 '이'탈락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

모음으로 끝난 체언 아래에서는 '이-'가 줄어들기도 함. 단, 다음과 같이 관형 꼴로 쓰일 때나, 명사형 어미 앞에서는 생략되지 않음. (예)직업이 가수인 그는 날마다 노래만 불러야 했다./그가 의사임을 오늘에서야 비로소 알았다. 단,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경우에는 줄어들기도 함. (예)이게 아마 맛있는 사과 겐다.

<임>과 마찬가지로 관형사형과 명사형에서 '이'가 잘 탈락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명사형어미 앞에서 생략되지 않는다고 해 놓고 예문에서는 명사형어미 '-음'의 예만 들었다. 명사형어미 '-기' 앞에서도 생략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명사형어미 '-음' 앞에서만 그렇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전자의 뜻이라면 '-기'가 들어 있는 예문도 들어야 할 것이고 후자의 뜻이라면 “명사형 어미”라는 표현을 “명사형 어미 '-음’”이라고 고쳐야 할 것이다.

또 끝 문장의 내용은 옳지 않다. 예문 “이게 아마 맛있는 사과 겐다.”에서 '사과일→사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맛있는'이라는 관형어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을 겐다'가 반쯤 문법화한 구성이기 때문에 '이'탈락이 가능한 것이다.<sup>11)</sup> 관형어가 있더라도 피수식어가 자립명사인 문장 “이게 아마 맛

10) <연>에 지정사 '이다'는 '이다'로 실려 있고 그 앞 표제어 '이다'는 '지분을 덮다'를 뜻하는 동사 '이다'이다. 이 '이다'의 활용정보란에 '이는, 이어, 입니다'가 옳게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예문들 속에 '이은'이라는 엉뚱한 활용형이 세 번이나 나온다. 이 '이은'은 '인'의 잘못이다. 예를 들어 “[...]이음을 이은 집[...].”은 “[...]이음을 인 집[...].”이라고 고쳐야 한다.

11) 이승재(1994)에서 똑같은 관형사형이라도 '관형사형+자립명사' 구성보다 '관형사형+

있는 사과일/사팔 가능성은 없다”에서 ‘이’탈락이 어색함을 보면 <연>의 마지막 문장은 잘못된 기술이 분명하다.

#### 4.4 <표>의 경우

<표>의 활용정보란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표>에서는 모든 용언 표제어에 활용정보란을 두고 ‘-어’활용형과 ‘-으니’활용형을 보여주고 필요에 따라 다른 활용형을 추가하고 있다. ‘이다’의 뜻풀이 끝에 “용언처럼 활용을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다’에 대해서도 마땅히 활용정보란을 두고 활용형을 보여야 한다.

<표>가 활용정보를 일부 보이고 있기는 하다. ‘이다’ 항목의 맨 끝에 참고란을 두어 ‘이어요/이예요’의 표준어형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준어 규정 26항에서 복수 표준어로 삼은 ‘-이예요’와 ‘-이어요’는 ‘-이다’의 어간 뒤에 ‘-예요’, ‘-어요’가 붙은 말이다. ‘-이예요’와 ‘-이어요’는 체언 뒤에 붙는데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예요’, ‘-여요’로 줄어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장남’에 붙으면 ‘장남이예요’, ‘장남이어요’라고 적으며 ‘손자’에 붙으면 ‘손자이예요/손자예요’, ‘손자이어요/손자여요’라고 적는다. 그런데 받침이 있는 인명의 경우는 접사 ‘-이’가 먼저 붙기 때문에 줄어든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영숙’에 붙으면 ‘영숙이예요’, ‘영숙이어요’라고 적어야 하며 ‘영숙이예요’, ‘영숙이어요’라고 적으면 안 된다. ‘아니다’에는 ‘-예요’, ‘-어요’가 붙으므로 ‘아니예요/아네요’, ‘아니어요/아녀요’라고 적어야 하며 ‘아니예요’, ‘아니어요’라고 적으면 안 된다.

여기서 인명의 경우에 대한 설명은 세련되지 못한 듯하다. 받침이 있는 인명이 경우에 따라 접미사 ‘-이’를 취하기도 하고 취하지 않기도 하는 현상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이’의 기능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밝혀져 있지 않다. 어쨌든 인명 ‘영숙’에 ‘이다’의 활용형을 붙이기 전에 반드시 접미사 ‘-이’가 먼저 붙는다는 진술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접미사 ‘-이’가 붙지 않을 수도 있다.

---

의존명사 구성에서 ‘이’탈락이 잘 일어남을 지적한 바 있다.

- (1) 성은 김이고 이름은 영숙이에요.
- (2) 창밖을 내려다보다 인파 속에서 있는 영숙을 보았다. 틀림없이 영숙이었다.
- (3) 어제 온 친구가 영숙이에요.

(1)에서 ‘영숙이에요요’는 ‘영숙+이에요’이다.<sup>12)</sup> (2)와 같은 문어적인 표현에서 접미사 ‘-이’ 없이 인명을 사용하는 일도 있다. ‘영숙이었다’는 ‘영숙+이었다’이므로 ‘영숙이에요요’와 같은 편이다. 반면에 (3)의 ‘영숙이에요요’는 ‘영숙이+이에요’이다. 받침 있는 인명에 접미사 ‘-이’가 붙은 ‘인명+이’가 받침 없는 명사로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명 뒤의 ‘이’가 ‘이다’의 어간인지 접미사 ‘-이’인지에 따라 ‘이에요/이어요’와 ‘예요/여요’가 달리 선택된다고 해야 정확하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인명 뒤에 붙는 접미사 ‘-이’를 분석적으로 소개하지 말고 ‘영숙’은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므로 그 뒤에 ‘이에요/이어요’가 붙고 ‘영숙이’는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므로 그 뒤에 ‘예요/여요’가 붙는다고 설명하는 편이 일반인 독자들에게는 훨씬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금>과 마찬가지로 <표>도 부록으로 용언 활용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이다’도 들어 있다. 사전 본문에 동사로 ‘이다1’(머리에 이다)과 ‘이다2’(지붕을 이다)가 실려 있는데 활용표의 ‘이다’에 어깨번호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이다1’과 ‘이다2’와 ‘이다3’(지정사)에 다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3)</sup> 활용표에 나와 있는 ‘이다’의 활용형은 ‘이고, 이네, 입니다, 이어(여), 이면, 임, 인, 이니’이다. 이들은 ‘이다1’과 ‘이다2’의 활용정보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사 ‘이다’의 활용정보로는 결코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다.

12) 여기서 ‘김’과 ‘영숙’은 따옴표를 동반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성은 ‘김’이고 이름은 ‘영숙’이에요). ‘영숙’과 ‘이에요’ 사이에 따옴표가 끼면 ‘이’가 접미사 ‘-이’일 수는 없게 되어 ‘이다’의 어간으로만 해석되게 된다.

13) 예를 들어 <표>의 본문에 ‘치다’는 방언과 북한어를 제외하면 ‘치다1’부터 ‘치다11’까지 있는데 활용표에는 ‘치다’로만 나와 있다. ‘들다’처럼 규칙용언과 불규칙용언의 활용양상이 다른 경우에는 활용표에 두 가지가 따로 나와 있다. 따라서 활용표의 ‘이다’는 활용하는 모든 ‘이다’, 곧 ‘이다1, 이다2, 이다3’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4.5 &lt;코&gt;의 경우

지금 나와 있는 사전 중 ‘이다’의 활용정보를 가장 잘 제시하고 있는 사전은 일본에서 나온 <코>이다. <코>의 ‘-이다’ 항의 활용정보란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지정사에 고유한 어미에 주의 : -르세, -라4,5, -라도1, -라서, -라야, -랍시고, -로구나, -로군, -야5, -에요, -요3 등

‘이다’의 어간에 이러한 특수한 어미형태가 붙는 점에 주의하라는 것이다. 이들 어미형태들도 이 사전의 표제어로 올라 있고 자세한 설명이 붙어 있다.

또 이 사전의 부록으로 실려 있는 ‘文法概說’에는 용언을 동사, 형용사, 존재사, 지정사의 네 부류로 나누고 그것들에 붙는 어미형태 몇 가지를 도표로 보이고 있다. 그 도표의 지정사란에 위의 어미형태들이 대부분 나와 있다.

앞에서 본 최근의 국어사전들은 <코>보다 나중에 나왔는데도 <코>보다 활용정보가 자세하거나 정확하지 않다. <금>이 더 자세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없어도 되는 정보가 많이 들어 있고 꼭 필요한 정보가 빠진 것이 있다는 점에서 <코>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인보다 일본인이 한국어를 더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관찰하고 사전에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 5. 기존 사전들에 나타난 ‘아니다’의 활용정보

‘아니다’의 활용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사전은 <임>, <연>, <표>이다.

<임>은 ‘아니다’를 표제어로 올리지 않았다. <임>은 소사전이어서 기초 어휘로 판단되는 것을 위주로 표제어를 선정했다. 따라서 ‘아니다’를 이 사전의 표제어가 될 만한 기초적인 단어는 아니라는 판단에서 표제어로 올리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이다’의 풀이 [4]에 다음과 같이 ‘아니다’에

대한 기술이 등장한다. 이것을 보면 ‘아니다’를 아예 표제어로 올릴 가능성마저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아니다’를 기초어휘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4] 부정 부사 ‘아니’와 함께 ‘아니다’로 쓰여, 주어로 쓰인 대상이나 명제가 ‘아니다’ 앞에 오는 대상이나 속성 또는 장소나 시간, 방법이나 원인 등과 관련이 없음을 나타낸다.

(예) 저것은 책이 아니다. / 성인(聖人)은 저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를 만난 것은 어제 아니다.

이처럼 ‘아니다’의 풀이를 ‘이다’의 한 부분으로 제시하는 것은 여느 사전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방식이다. 이것은 ‘아니다’가 ‘아니+이다’라는 통사적 구성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한 결과인 듯하다. ‘아니+이다’가 ‘아니 가다’ 또는 ‘안 가다’와 같은 단형부정 구성과 같다면 ‘아니 가다’와 ‘안 가다’가 사전의 표제어로 오르지 않듯이 ‘아니+이다’도 표제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통사적 구성방식이야 어떻든 어휘론적으로 ‘아니다’가 한 단어라면 마땅히 사전의 표제어로 올려야 할 것이다. <임>은 ‘아니다’의 활용양상에 대한 설명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니다’를 ‘아니+이다’로 보면 ‘아니다’의 활용양상이 결국 ‘이다’의 활용양상과 같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사전 이용자가 ‘아니+이다’의 분석과 ‘이다’의 활용정보를 바탕으로 ‘아니다’의 활용양상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석한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연>은 활용정보란에 ‘아닌, 아니어, 아닙니다’만 제시하였다. 이것이 충분한 정보라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표>는 활용정보란에 ‘아니니’만 제시하였다. 다른 용언의 경우에 비추어보면 이는 교정상의 실수로 보인다. 활용정보란에 ‘아니라, 아니니’를 제시하려 했을 것이다.<sup>14)</sup>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턱없이 부족한 정보이다. <표>의 ‘이다’ 항목의 참고란 끝에 다음 언급이 있다.

14) ‘아니라’ 대신 ‘아니어’를 제시하려 했을 수도 있다.

‘아니다’에는 ‘-예요’, ‘-어요’가 붙으므로 ‘아니예요/아네요’, ‘아니어요/아녀요’라고 적어야 하며 ‘아니예요’, ‘아니여요’라고 적으면 안 된다.

이 정보를 ‘이다’ 항목에서만 보여주고 ‘아니다’ 항목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이다’와 ‘아니다’를 따로 표제화하고 둘을 전혀 관련짓지 않은 <표>의 기술 태도에 따르면 이 정보는 ‘이다’ 항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아니다’ 항목에 들어가야 한다.

<표>의 부록에 실린 용언 활용표에 ‘아니다’가 들어 있지 않다. 특수한 활용형을 여럿 가진 용언이 빠져 있는 점에서 활용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의 국어사전들보다 <코>가 제시한 활용정보가 훨씬 유익하다. ‘아니다’ 항의 활용정보란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지정사에 고유한 어미에 주의 : -르세, -라4,5, -라도1, -라서, -라야, -랍시고, -로구나, -로군, -아5, -예요, -요3등<sup>15)</sup>

‘이다’와 ‘아니다’의 활용정보를 일관성 있게 제시한 점에서도 위의 국어사전들보다 낫다.

## 6. 지정사의 활용정보를 제시하는 방식

### 6.1. 지정사의 활용과 불규칙활용

‘이다’와 ‘아니다’의 활용은 규칙적인 부분도 있지만 불규칙적인 부분이 더 많다. 불규칙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이다’와 ‘아니다’의 활용은 불규칙활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ㄷ’불규칙활용 등 기존에 불규칙활용으로 불러 온 것들도 활용형 전체가 불규칙적인 것이 아니고 일부 활용형이 불규칙적인 것이다. ‘듣다’의 활용형 ‘듣고, 듣지, 듣게, 듣습니다’ 등은 규칙

15) 여기서 ‘-예요’는 ‘-에요’의 잘못이다. 단순한 오자인 것으로 해석된다.

적인 활용형이고 ‘들어, 들었다, 들으니, 들으시면’ 등은 불규칙적인 활용형이다. 따라서 ‘이다’와 ‘아니다’의 활용도 마땅히 불규칙활용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현행 학교문법에서는 ‘이다’와 ‘아니다’의 활용을 불규칙활용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남기심·고영근(1985/1993 : §7.3)은 활용의 규칙성과 불규칙성이라는 제목 아래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다’와 ‘아니다’의 활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마땅히 불규칙활용의 한 유형으로 소개해야 할 것이다.<sup>16)</sup>

‘이다’와 ‘아니다’의 활용이 불규칙활용이라면 문법뿐만 아니라 사전에서도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금>, <임>, <연>이 ‘이다’에 대해 활용정보를 자세히 제공하려 한 시도는 옳다. 그 정보가 충분히 자세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이다. 제시해야 할 정보의 양이 좀 많다고 해서 사전이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문법보다는 사전이 나서서 ‘이다’와 ‘아니다’의 활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6.2. 지점사의 활용정보를 제시하는 위치

문제는 사전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이다. <임>, <연>, <표>처럼 활용정보를 뜻풀이보다 먼저 제시하는 방식을 따르면 ‘이다’와 ‘아니다’의 경우에는 뜻풀이 앞에 지나치게 긴 활용정보란이 끼게 된다. 그렇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와 같이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사전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 <임>, <연>, <표>가 한 것처럼 해당 표제어에 대한 풀이가 끝난 뒤에 참고란을 따로 두어 활용정보를 제시할 수도 있다. 다른 방법은 <표>처럼 활용표를 부록으로 제시할 때 ‘이다’, ‘아니다’의 활용표를 따로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이다’와 ‘아니다’의 활용정보란에는 부록의 활용표를 참조하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6) ‘이다’와 ‘아니다’의 활용양상의 전체를 기술하는 작업이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 형태음운론적인 관점에서 ‘이다’와 ‘아니다’의 활용형들 모두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1) 원칙대로 뜻풀이 앞에 제시하는 방안
- (2) 해당 표제어의 풀이가 모두 끝난 다음에 제시하는 방안
- (3) 사전의 부록에서 제시하는 방안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전 이용자가 '이다'와 '아니다'의 활용정보를 찾아보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 6.3 지정사의 활용정보를 표현하는 방식

용언의 활용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금>, <연>, <표>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활용형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이다'와 '아니다'의 활용정보도 문제가 되는 활용형을 일일이 나열해 주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이라, 아니라'가 어떤 어미가 연결된 활용형인지 알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라'는 '이+다'의 활용형일 수도 있고 '이+어'의 활용형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이 전혀 표현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또 '이다'의 어간에 연결어미 '-어'가 붙은 활용형이라도 '이라'로 실현될 때가 있고 '이어'로 실현될 때가 있으므로 활용형만 제시해 가지고는 활용양상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각의 활용형과 더불어 거기에 참여한 어미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코>처럼 지정사에만 붙는 특수한 어미형태들을 활용정보란에 제시하고 표제어 로도 올리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소이다'는 문어적이고 '소다'는 구어적이라는 식의 용법상의 차이 설명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방식은 사전 편찬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 7. 마무리

지금까지의 국어사전들은 ‘이다’와 ‘아니다’의 활용양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다’에 대한 활용정보가 불충분했던 것은 ‘이다’의 문법적 특수성이 ‘이다’를 활용어의 한 가지로 인식하는 일을 방해해 왔고 또 ‘이다’의 활용양상 전반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다’의 활용양상이 사전에서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던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아니다’를 형용사로 보는 데 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용사의 활용양상을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으로 나누어 기술할 때 ‘아니다’도 어떻게든 기술의 대상에 포함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그 흔한 ‘아니라, 아니라서, 아니라도, 아니라야, 아니라고, 아니야’ 등의 불규칙적인 활용형들이 오래도록 무시되어 왔던 것이다.

일본에서 나온 <코>가 어떤 국어사전보다 정확하고 간결하게 ‘이다’와 ‘아니다’의 활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일은 국어사전 편찬자들과 국어학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국어사전 편찬자들과 국어학자들은 국어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다’와 ‘아니다’의 활용정보를 사전에서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정사의 활용양상에 대한 포괄적인 형태음운론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수준 높은 이론을 요구하거나 방대한 자료수집을 전제하는 작업은 아닌 듯하다.

## 참고문헌

### 1. 논저

- 고영근(1987), 「보충법과 불완전계열의 문제」, 『어학연구』 23 : 3[고영근(1989) 『국어형태론연구』(서울대출판부)에 재수록].
- 김민수(1994), 「‘이다’ 처리의 논쟁사 : 학교문법 통일안을 중심으로」, 『주시경학보』 13, 탑출판사.
-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개정판, 1993.
- 이광정(1994), 「“이다” 연구의 사적 고찰」, 『주시경학보』 13, 탑출판사.
- 이승재(1994), 「‘이다’의 삭제와 생략」, 『주시경학보』 13, 탑출판사.

### 2. 사전

-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상형 편(1991),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 남영신 편(1994), 『우리말 분류 대사전』, 성안당.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 한국어 사전』, 두산동아.
- 이희승 편(1961), 『국어대사전』, 초판, 민중서관.
- \_\_\_\_\_ (1982), 『국어대사전』, 개정판, 민중서관.
- \_\_\_\_\_ (1994), 『국어대사전』, 개정판, 민중서관.
- 임흥빈 편(1993), 『뉘앙스 풀이를 겸한 우리말 사전』, 아카데미하우스.
- 한글학회 편(1947~1957), 『큰 사전』, 을유문화사.
- \_\_\_\_\_ (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 간노 히로오미[菅野裕臣] 외 편(1988), 『コスモス朝和辭典』, 東京 : 白水社, 제2판, 1991.